

■ 여름 휴가철 지역국회의원들 뒤편 하나

# “이젠 총선판” 너도나도 고향 앞으로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권이 여름휴가를 맞았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역구 활동을 하느라 분주한 한 달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 같으면 대부분 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하며 총선의 또는 연구의 시간을 갖지만 총선이 불과 10여개월 밖에 남지 않은 까닭에 지역구 다지기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8월 임시국회까지 일정이 잡혀 있어 해외 방문 계획을 잡지 않은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20명 중 해외에 나가는 의원들은 이용섭·유윤근 의원의 정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광주에 출마가 예상되는 이정현 의원의 해외 방문이 예정돼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일 출국해 10박12일 일정으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덴마크

## 내달 임시국회... 대부분 지역구 다지기

### 이정현·이용섭·유윤근 등은 해외 방문

를 방문한다. 순방에는 한나라당 한선교·윤상현·이정현, 민주당 박기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 동행한다.

박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발트 3국 등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리투아니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김성조 위원장과 강길부 의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오는 12일부터 일주일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을 방문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의 유상원조자금)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유윤근 위원장과 한나라당 주성영·박준선 의원에 4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사법제도 현황을 살펴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고, 지경위 역시 태양열과 전기 등 에너지 개발 현황과 미래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시찰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상임위별로 다양한 해외 연수가 마련됐지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참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예년에는 7~8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

이 다반사였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대부분 3~4명이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의원들의 활동 배경에는 총선이 있다. 총선을 향한 물밑 경쟁이 대부분 지역구에서 사실상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 방문이 한가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3일 “이번 여름에는 8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 역시 “8월에 국회 일정이 있어서 외국을 나가기 쉽지 않다”며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도 있는 만큼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최대통령, 지원 활동 남아공 등 3개국 순방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숙소인 호텔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위 관계자 및 참모진과 내부전략회의를 열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상대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기에 앞서 3일 오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리허설(예행연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발표되는 6일 오후까지 유치지원 활동을 벌인 뒤 7일 아프리카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비주류연합체인 새신연대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희망 2012'라는 이름으로 2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대표인 천정배 최고위원과 김영진 문화진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에 희망주는 파수꾼 될 것”

### ‘민주희망 2012’ 출범

민주당 새신연대가 3일 ‘민주희망 2012’으로 이름을 바꾼 2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희망 2012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열어 천 최

고위원과 김영진 문화진 의원을 공동 대표로, 장세훈 의원을 사무총장, 김성호 전 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정동영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과 정경환 정대철 전 의원이 상임고문단을 맡았으며, 지도부 가운데는 박영

선 정책위의장이 상임집행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희망 2012는 출범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절망의 나라로 내모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라며 “당의 정책 노선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릴 때는 단호하게 민주당을 바로 잡는, 국민과 당원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EU 같은 공동체 만들어 번영 모색”

### 7일 광주서 ‘동북아 평화 한중일 국제회의’ 여는 박주선 최고위원

오는 7일 동북아위원회 주관으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 중일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동북아도 EU, NAFTA와 같은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한·중·일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3일 동북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이날 심포지움에 대해 들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한 계기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 한일 관계 등 외교정책 전반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의 협력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다 진지한 모색을 시작하려 한다.

-어떠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나.

▲우선 동북아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국의 역할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각국의 준비 상황과 시급한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북아 공동체의 그림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와 지리학적으로 밀접한 한국과 중국, 일본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동북아 공동체 방안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공동체의 효과는.

▲한국, 일본, 중국은 인구나 경

제 규모에서도 세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당장, EU나 NAFTA 같은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고 물론 동북아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동북아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은.

▲일단 7일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것이다. 위원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학계와 종교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전국 16개 광역단체는 물론 해외에도 지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도 동북아 위원회와 성격이 같은 단체가 구성될 예정인만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북아 공동체 논의에서의 북한은.

▲고립과 압박으로는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 동북아 평화의 위한 요인인 북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동북아 공동체 논의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이 참여하는 ‘3+1’의 동북아 공동체 방안도 적극 논의돼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孫, 잇단 외교행보 이미지 제고

### 4~7일 방중 시진핑 면담... 美 방문도 고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잇단 외교 행보를 통해 대선주자로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달 27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은 데 이어 4~7일에는 중국을 방문한다. 그는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동북아 긴장 완화와 한·중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미국 방문도 타진하고 있다.

손 대표의 외교 행보는 민주당이 지난 5월 한나라당의 친(親)서민 대안 이브에 대응해 제시한 키워드인 ‘민생진보’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손 대표 측 설명이다.

성장보다 복지에 방점을 두고 한반도 평화,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통

해 성장과 고용 안정을 달성한다는 민생진보 전략의 의연이 국외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이용섭 대변인은 3일 “6월 임시국회와 청와대 회담이 정의와 복지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동북아 정세 안정, 중·일과의 경제협력 강화 역시 민생난 해결과 직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당내 대선후보 경쟁군인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아가 내년 대선부터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미리 해외 동포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시각도 있다.

## ‘영원한 재야’ 장기표

### 녹색사회민주당 창당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창당 작업에 나섰다. 장 대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인간적 존엄과 국가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보편적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녹색사회민주당(가칭)을 창당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당취지문을 통해 “과잉생산과 과잉소비에 환경과 파괴와 인간성 상실은 물론 지구파괴까지 가져온다”며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최상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주의와 생태주의를 국가 운영과 삶의 기본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태양광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공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력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KWh)	설치시 청구요금	월감 요금
8만원 (연 4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연 4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연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100원
15만원 (연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연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99,400원
25만원 (연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연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정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 062-512-1180 / H.P 011-659-7001**

#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원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정직영 / 원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칼라강판지붕개량 ☎ 061) 335-8842, 010-4024-4005